

‘5·18 특별법’ 국회 통과 ... 발포명령자 밝혀야

독립적인 진상조사위 설치...진실 규명 마지막 기회 조사결과 범죄행위 인정되면 고발·수사 요청 가능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제1차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예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과거에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지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진상조사위는 조사 내용이 사실이 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 ▶ 활동 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 조사 위원 구성 : 9명
(국회의장 1·여당 4·야당 4명)
- ▶ 조사 내용 사실 확인 땐
→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사 내용 범죄 개연성 인정 땐
→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가능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달 2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겼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5·18 특별법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와 관계없이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위원 소지가 있다며 소위로 넘겨 더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측이 위원 소지가 없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니 국방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본회의에 넘

기지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여야는 정회를 하고 위원 소지가 있다고 주장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제출 등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이다. 여야는 이어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재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이날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5·18 특별법 통과 ‘탕탕탕’

지난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숨 돌린 금호타이어

채권단, 채무상환 결정 한 달 유예...노사, 자구안 절충점 찾아

파국으로 치닫던 금호타이어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채권단은 채무 상환 결정을 한 달 유예하기로 했고 노조도 사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자구안) 절충점을 찾았다.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는 지난 28일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채무 상환 결정을 한 달 늦추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예초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가 기한(26일) 내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금호타이어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안 및 공식 입장을 정리하라고 밝힌 바 있다.

채권단은 지난 26일까지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1조3000억 원의 차입금 만기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채권단 요구 기한이 지나도록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채권단이 “자구계획 이행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금호타이어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모든 실행 가능한 처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

힌 점에 주목,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채권단의 결정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파국만을 막자는 공감대 속에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점, 법정관리로 갈 경우 채권단이 부담해야할 손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분석했다. 채무조정 방안은 ▲올해 말까지 원금 상환 유예 ▲담보채권은 연 4%, 무담보채권은 연 2.5%로 금리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도 이날 늦게까지 본격 교섭을 진행하며 해의 매각 반대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조와 사측이 대립했던 ‘해외매각 중단’과 관련,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매각을 추진할 경우 노조와 합의 후 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채권단의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노사 간 의견을 모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고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등산 민자개발 공모 중흥건설 등 5개 기업 의향서 제출

광주시, 5월 우선협상자 선정

관광단지 조성 본격화 관심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광주지역 중흥건설업체인 중흥건설을 비롯해 모두 5개 기업이 의향

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제자리결음을 해 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주)중흥건설, (주) 중흥도

건, (주)유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국제자산신탁(주), (주)엔지리프링 등 5곳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제출은 사업 참가 의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을 실제 진행하게 될 우선협상 대상자를 뽑는 절차가 남아 있다.

광주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5월 31일까지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전체 사업 면적은 41만 7531㎡(분양면적 39만4730㎡)이며,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준공일까지 5년이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이었던 어등산 일원(273만 6218㎡)에 각종 유휴지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수년이 걸린 불발탄 제거와 경기부활, 민간업체 자금난, 공공시설 개발부담에 따른 수익성 결여까지 겹쳐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광주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민간개발 방식을 전제로 숙박시설 축소·상가시설 확대 등을 결정했다. 또 상가시설 면적을 2만4170㎡으로 줄여 사업자를 공모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6·13 지방선거 누가 뭐냐
장흥군수·곡성군수 ▶5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3
우리가 뭐냐 - 광주철인클럽 ▶20면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계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 E R 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